

스탈린의 ‘태양’ 아래: 김일성 형상의 원형을 찾아서

김진영*

- 개요 -

해방 후 군중 앞에 나타난 김일성은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무엇보다 젊고 단순하고 유쾌한 사람으로 비친 그의 실제 모습은 민중이 기대하던 백전노장과 일치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김일성을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로 형상화하는 작업의 첫 과제는 그가 가짜가 아닌 진짜 항일 영웅이라는 사실의 입증이어야 했고, 그 방법 중 하나가 스탈린과의 친연성을 강조함으로써 적법한 계승자 위상을 확립하는 것이었다. 스탈린이 곧 레닌이듯, 김일성은 곧 스탈린이어야 했다. 두 지도자의 형상 또한 동일 공식에 기초한 닮은꼴이어야 했다. 그 과정에서 ‘태양’의 수사법에 주목하게 된다. 이 글은 초기 ‘태양-김일성’ 형상이 어떤 공식과 논리로써 ‘태양-스탈린’의 원형에 덧입혀져 활용되었는가를 추적한다. ‘태양’ 수사는 ‘진짜냐 가짜냐’, ‘사실이나 소문이나’의 기로에서 출발한 김일성의 지도자 정체성을 정당화하는 전략으로, 동시에 해방기 친(親)스탈린·소련 이데올로기를 표출하는 수단으로 적극 활용되었다. 그러나 ‘계승의 논법’에 따라 강조되었던 김일성과 스탈린의 일체성은 스탈린 서거 후 차츰 희미해졌고, 결국 김일성은 ‘주체의 논법’을 통해 유일무이한 ‘민족의 태양’으로, 더 이상은 신화적 비유가 아닌 권위의 실체로서 빛을 발하게 된다.

주 제 어: 스탈린, 김일성, 지도자 형상, 태양 수사, 한설야, 그리바초프

* 연세대학교 노어노문학과 교수.

1. 김일성의 등장: '풍문'에서 '사실'로

김일성이 일반 대중 앞에 첫선을 보인 것은 1945년 10월 14일, 평양 공설 운동장의 '소련군 환영대회'를 통해서였다. 이후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님의 조국 개선을 환영하는 군중대회'라 일컬어질 그 자리에서 김일성은 “‘레닌’과 ‘스탈린’의 엄청나게 큰 초상화”를 배경으로 소련군정 사령부가 작성한 원고를 읽었다.¹⁾ 대회는 소련이 “처음으로 인민에게 전설의 김일성 장군을 선보여 부상시킨다는 정치 캠페인”의 일종이었으며, 캠페인 목적은 김일성을 ‘항일 빨치산 투쟁 민족 영웅’으로 못 박는 것이었다고 당시 소군정 관계자들은 증언한다.²⁾

그러나 약관 34세의 김일성은 민중이 기대하던 백전노장의 모습과 거리가 멀었기에 의혹의 빌미를 제공할 수밖에 없었다.³⁾ 초기 소련 측 인사들이 공통되게 주목한 것도 조선 지도자의 예상 밖 ‘젊음’과 ‘쾌활함’이었으며, 소련인의 눈에 비친 그의 첫인상은 예컨대 “젊고 단순한 사람, 유쾌한 사람”, “놀랍도록 솔직하고 밝은 얼굴의 젊은이” 등으로 묘사되었다.⁴⁾ 이것이 논의의 출발점이다. ‘쾌활한 젊은이’의 인상과 ‘민족 지도자’로서의 무거운 사명, 젊은 ‘인간 김일성’의 초상과 만고불멸 ‘영웅 김일성’의 위상은 어떻게든 합치를 이루어야만 했다. 따라서 의외의 첫인상이 비범성의 표식으로 인정되고, 가짜냐 진짜냐의 의혹은 각종 ‘사실’로써 불식되는 과정이 초기 김일성 영웅 서사의 기본 플롯을 차지하게 된 것이다. 단적인 예가 한설야의 「개선」인데, 이 작품에서 한설야는 김일성의 숙모 시점으로 본 1945년 10월 14일 행사에

1) 한재덕(1961) 『김일성을 고발한다』, 공산권문제연구소, 60-69쪽.

2) 소련군정 사령부 정치국장이었던 메클레르(Mekler)와 정치사령관 레베데프(Lebedev)의 증언이다. 남원진(2012) 「한설야의 문제작 「개선」과 김일성 형상화에 대한 연구」, 『비평문학』, 제44호, 한국비평문학회, 178-179쪽에서 재인용.

3) 평남인민정치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집회에 참석했던 오영진(이후 월남)과 한재덕(이후 귀순)의 회고에 의하면, 김일성의 첫 등장은 성공적이지 않았을뿐더러 오히려 ‘가짜’라는 의심만 확고하게 해주었다. 오영진(1983) 『소군정하의 북한: 하나의 증언』, 중앙문화사, 90-92쪽; 한재덕(1961), 66.

4) 표도르 짜르치스키(2018) 『김일성 이전의 북한: 1945년 8월 9일 소련군 참전부터 10월 14일 평양 연설까지』, 한울, 116쪽; A. Гитович и Б. Бурсов(1948) *Мы видели Корею*, Л.: Молодая гвардия, С. 21. 짜르치스키는 고향, 생년월일 등 김일성과 관련된 많은 ‘팩트’가 날조된 것이라는 증언들을 책에 담고 있다.

초점을 맞추므로써 장군의 존재가 풍문 그대로의 사실임을 입증하고자 했다.

1946년 여름부터 지방인민위원회 선거 시기까지 약 5개월간 북한에 체류했던 소련 기자 기토비치(A. Гитович)·부르소프(Б. Бурсов)의 인상기 역시 김일성의 '실체'를 근거리에서 보고 전달한 해방기 문헌이다.⁵⁾ “우리는 조선을 보았다(Мы видели Корею)”라는 원제에 걸맞게, 저자들의 목표는 소련 내에 전혀 알려지지 않거나 어렵풋하게만 짐작되던 해방 조선의 실상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 전달하는 것이었고, 그 실상의 핵심에 김일성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려낸 김일성은 직접 관찰한 바의 재현이라기보다, 다양한 정보를 합성한 2차 구성물(construct)에 가까웠다. 직접 대면에 앞서 그들은 이미 '전설'과 '명성'에 휩싸인 지도자의 '풍문'에 익숙해 있었으며, 대면 후에는 “위대하고도 찬란한 인간과 만났다는 느낌(мы вышли из кабинета с ощущением того, что побывали у большого и светлого человека)”의 여운 속에서 빨치산 참모(안길)가 전해주는 '이야기'를 세 시간에 걸쳐 기록했다.⁶⁾ 통역자는 문일⁷⁾이었다. 책에서 열세 쪽 분량에 해당하는 '김일성 장군' 챕터는 영웅 이순신의 역사로 시작하는데, 이 또한 정률⁸⁾의 전언(傳言)에 기초한 것이었다.

-
- 5) 기토비치·부르소프 인상기의 우리말 번역서는 A. 기토비치·B. 볼소프(2006) 『1946년 북조선의 가을』, 최학송 역, 글누림. 한글 번역본은 1949년 중국어본의 중역이며, '기토비치'와 '볼소프'는 '기토비치'와 '부르소프'의 오기이다. 시인이자 번역가였던 기토비치는 추가로 기행 시편을 써 단독 시집 「조선 시편(Стихи о Корее)」(Л.: Советский писатель, 1950)을 발간했다. 그가 쓴 조선 시편과 번역시는 1953년에 「아시아의 별 아래서(Под звездами Азии)」(Л., Советский писатель, 1955)에 재수록되었는데, 조선 시편(총 15편)의 제목만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조선의 색」, 「스탈린의 초상」, 「생명의 뿌리」, 「소련 만세!」, 「춤」, 「개성 가는 길」, 「배우」, 「언론의 자유」, 「남천동」 외 조기천, 이기영, 민병균, 전몽수, 박세영 시의 번역물 6편.
- 6) “그날 저녁 문일이 안길과 함께 호텔을 찾아와, 우리는 김일성과 그의 부대에 대한 안길의 이야기를 약 3시간에 걸쳐 받아적었다.”(Гитович и Бурсов 1948: 22)
- 7) 문일(1913-1968)은 해방후 소련군과 함께 북한에 파견되어 김일성 통역비서로 일했다. 그러나 그의 역할은 단순 '비서'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지며, 스탈린과의 관계도 밀접했다고 한다. 스탈린 사후 김일성과 결별하고 소련으로 돌아갔다.
- 8) 연해주 출신인 정률(1918-2013)은 소련군 장교로 북한에 체류하며 문예총 부위원장, 김일성종합대학 리문학부장, 문화선전성 제1부상 등을 지냈다. 종파 투쟁 후에는 소련으로 귀환해 언론인으로 활동했다. 본명은 정상진이다. 회고록 『아무르 만에서 부르는 백조의 노래』(지식산업사, 2005)를 썼다.

이순신의 명성을 능가하는 전쟁 영웅이 조선 땅에 다시 나타나기까지는 수백 년 세월이 흘러야 했다. 과거의 영웅이 그러했듯, 오늘의 영웅 역시 일본과의 전투를 통해 명성을 얻었다. 그는 10년도 훨씬 넘는 세월을 조선 유격대 대장으로 활동했는데, 처음에 30명에 불과했던 부대는 몇 년 후 10만 명의 유격군대로 커졌다. 그의 이름 김일성, 인민의 사랑과 전설로 둘러싸인 그 이름을 모르는 조선인은 아무도 없다. 그가 겪어온 삶과 투쟁의 역사는 평범치 않다. 우리는 5개월간 북조선 땅을 여행하며 김일성에 대한 수백 가지 이야기를 들었다. 그의 유격대 대원과 대장들의 목격담도 받아적었다. 농민들이 전하는 전설들도 기록했다. 그리고 김일성 본인과 긴 대화를 나누는 행운도 여러 번 가졌다. 그의 지휘하에 시행되어온 북조선의 민주적 개혁에 대해서는 우리의 눈으로 직접 확인했다.⁹⁾

기토비치·부르소프의 북조선 인상기는 일찍이 정복지를 답사하던 제국주의 민족지학자(ethnographer)의 보고서 틀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다. 그들은 김일성에 관한 ‘떠도는 이야기들’을 수집하고, 체험자를 심층 면접하고, 자신들의 개인적인 인상을 기록했다. 현지인과의 컨택트 존(contact zone)에는 항상 공식적인 통역이 따랐으며, 이야기 제공자와의 만남 역시 통역자가 주선했다. 김일성 비서였던 문일이나 소련군 출신 문화부 위원이었던 정물은 모두 소련이 파견한 소련 출신 인사들이었으며, 이들 ‘문화번역가’가 수집한 ‘떠도는 이야기들’이 ‘영웅의 초상’을 구성해주었다. 유격대원의 증언이나 기토비치·부르소프의 목격담은 떠도는 이야기들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보조 자료였고, 정물이 들려준 이순신전은 청년 김일성의 초상에 항일투쟁의 역사성을 덧입혀줄 배경 자료에 해당했다.

영웅 이야기는 한마디로 신념의 서사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가 진짜냐 가짜냐의 질문은 애초부터 무의미한 것일 수 있다. 김일성 초상은 그의 영웅성을 전제로 한 것이기에 당연히 사실성을 담보 받으며, 또 역으로 초상의 지속적 제작과 확산을 통해 집단적 믿음을 강화하고 고착시킨다. 고전주의 미메시스 원칙에 대입하면 이해가 쉬워지는데, ‘인민의 사랑을 받는 전설적 지도자’라는 ‘이테아’가 우선 설정되고, 그로부터 한 단계 떨어진 ‘전범(prototext)’으로서의 ‘마스터 초상’이 그려지고 나면, 거기서 또 한 단계 떨어진 재현의 초상들이 만들어진다. 모든 재현 텍스트는 원형 텍스트에 근접하기 위한 상호경쟁적 모방(emulatio) 작업으로 보면 될 것이다. 이것이 영웅 서사의 (재)생산 매커니즘이다.

9) Гитович и Бурсов(1948), 24.

기토비치·부르소프의 기록에 따르면, 김일성 형상의 윤곽은 1945년 10월 환영대회 후 1년도 채 못 되는 기간 내에 정착되었던 듯하다. 그들이 수집한 수백 종의 이야기와 전설, 내부자 증언 등은 당시 빠른 속도로 진척된 형상화 작업의 확산력을 증거 해준다. 전언에서 출발한 김일성의 전설적 위상은 1946년 3월의 토지개혁과 11월의 인민위원회 선거를 거치면서 직접 체험된 '사실'로 굳혀졌고,¹⁰⁾ '풍문'이 '사실'로 치환되는 순간을 사건화한 한설야 작 「개선」(1948)은 김일성 영웅 서사의 전범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2. 김일성의 형상화: '사실'에서 '신화'로

『한설야선집』(1960)에 수록된 「개선」 판본에는 '1948.3.1.'이라는 집필 시점이 명시되어 있다.¹¹⁾ 한설야는 1946년에 이미 김일성 항일투쟁기인 「인간 김일성」과 「영웅 김일성」을 썼고, 같은 해 노동절을 기해서는 「김일성 장군 인상기」를 썼다. 『노동신문』 전신 격인 『정로』에 연재된 이 인상기는 단행본 『김일성 장군』(북조선 5.1절기념사업준비회, 1946)으로도 발행되었으며, 이듬해에는 단행본 『영웅 김일성장군』(신생사, 1947)으로 재발행되었다.¹²⁾ 항일

10) 신형기(2010) 「이야기의 역능(力能)과 김일성」, 『현대문학의 연구』, 제41집, 한국문학연구학회, 301-306쪽 참조. 실제로 김일성 가짜 의혹은 만경대의 가족과 친지가 공개되고, 이에 관한 대대적 보도가 나온 후 가라앉았다는 설도 있다. 김국후(2008), 『비록 평양의 소련군정』, 한울, 82쪽; 남원진(2012: 179)에서 재인용.

11) 한설야(1960) 『한설야선집(8)』, 평양: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36쪽. 「개선」은 한설야의 다른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개작 역사를 지닌다. 1948년 8월 판본(『단편집(탄갱촌)』 수록), 1955년 6월 판본(김사량 외, 『개선』 수록), 1960년 5월 판본(『수령을 따라 배우자』 수록), 1960년 8월 판본(『한설야선집(8)』 수록)에 이어 복권 후인 1986년(『조선문학개관(2)』)과 1994년(『조선문학사(10)』) 판본이 있다. 「개선」의 창작 배경과 판본 문제에 관해서는 남원진(2012: 169-172) 참조.

12) 「인간 김일성」과 「영웅 김일성」의 1946년 원본은 확인되지 않고, 대신 1960년 판본 「영웅 김일성 장군」과 「인간 김일성 장군」을 통해 내용 추정이 가능하다. 남원진(2012: 156), 각주 5 참조. 1946년의 「김일성 장군 인상기」에 대한 정보는 <http://naver.me/5SBKJqHC> 참조. 1947년 전기 『영웅 김일성장군』에 대한 정보는 임유경(2011) 「나의 젊은 조국: 1940년대 한설야의 '부권 의식'과 '청년-지도자 서사」, 『현대문학의 연구』, 44권, 한국문학연구학회, 216-218쪽 참조.

영웅 김일성을 주인공 삼은 단편 「혈로」가 대중 앞에 첫선을 보인 것도 해방 1주년을 기념하는 1946년 8월이다.¹³⁾

그로부터 1년 반 지나서 발표된 「개선」은 소련군을 주인공으로 한 한설야의 문체작 「모자」와 연동되어 두 차례 개작을 거친 후 김일성 체제 확립 시기인 1960년 판본으로 발전했다. 김일성 형상의 모델 텍스트로서는 이 1960년 판본이 공식 정본의 위상을 지닌다. ‘3월 1일’의 집필 시점 표시는 이후 수령 형상 중심축으로 자리 잡게 될 항일투쟁 서사의 증표라 할 수 있다. 「개선」에 관하여 더불어 기억할 점은, 앞서 언급한 한설야의 기존 저작은 물론 한재덕의 「김일성장군개선기」(1945.10, 『평양민보』 연재, 『문화전선』 창간호 재수록), 「김일성장군 유격대전사초」(『김일성장군개선기』, 민주조선출판사, 1947 수록) 등 관련 문헌들과의 상호텍스트성이다. 요컨대 「개선」은 체제가 기획하고 생산한 집체 창작물로서의 성격을 띠며, 작품에 기록된 ‘사실’과 그것이 서술된 기법(즉 수사학) 역시 체제의 산물이기는 마찬가지다.

「개선」의 김일성 영웅화 전략은 실제 없는 ‘소문’에서 실제 있는 ‘사실’로의 반전에 있다. 이야기는 김일성에 관한 ‘의문’과 ‘소문’으로 시작해 ‘사실’로서의 검증을 거친 후(숙모의 증언을 통해), 민중이 신앙하는 미래 비전으로 끝을 맺는다. 말하자면, 의문에서 사실을 거쳐 확신으로 귀결되는, 의식화의 변증법적 경로를 보여준다.

창주 어머니는 오늘도 사람이 모여 선 곳마다 기웃거리고 있었다. 아무 리 해도 오늘은 자기 가슴에 품겨진 커다란 의문을 품고 가야 할 참이었다. 그 의문은 자나 깨나 그의 가슴에서 햇불처럼 필력거리고 있었다.

“김일성 장군이 돌아왔다!” 하는 지나가는 소문을 들은 지 이미 이틀이 되어도 아직 그 적실한 사실을 알 길이 없었던 것이다. 아무와 물어보아도 처음은 저도 아는 체 말을 하나 다가서서 따지면 그저 저도 들은 소문이라고 생개똥개 대답할 뿐이다. [...] 비록 지나가는 소문이라 하더라도 오늘은 밑바닥까지 갈라보고 집으로 돌아가야지 그저 흐지부지하고 말 수는 없었다. 창주 어머니는 거리 길가에 모여 선 사람 중에서 그림직한 사람을 골라 가며 “여보십시오. 김일성 장군이 돌아왔다는 말이 사실이웁니까?”하고 물었다. 그런즉 거개 다 “글세 그런 소문이 있기는 함데다만 우리는 보지 못 했 췌다” 하고 대답하는 것이다. 사람마다 소문을 들은 것은 사실이니 때지 않은 굴뚝에서 연기 날 리 없다고 생각되어 창주 어머니의 심장은 바짝 더 죄였다.¹⁴⁾ (인용자 강조)

13) 한재덕 외(1946) 『우리의 태양(김일성장군찬양특집)』, 평양: 북조선예술총연맹.

의심과 불신의 렌즈를 통과한 영웅 김일성은 인민의 눈과 귀를 통해,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가까운 친척(숙모인 창주 어머니)의 기억과 증언을 통해 그 실체성을 부여받는다. 일반 민중에게는 외모부터가 “뜬던 소문같이 영웅 기골”이며,¹⁴⁾ 숙모에게는 “분명히 옛날의 어린 장군 그대로”이듯,¹⁵⁾ 김일성에 관한 소문과 의문은 언제나 사실로 드러나기 마련이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그 ‘소문’은 ‘사실’로 드러나는 것에 멈추지 않고,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또 다른 차원의 환영으로 이어지며 급기야 역사적 현장의 대광경을 눈앞에 재생해낸다. ‘사실이 된 소문’을 초월해 ‘사실이 된 신화’의 단계로 진화하는 이 과정에서 실제 역사를 소환하는 힘은 ‘상상’에 있다. 예컨대 숙모가 지금 듣게 된 목소리는 과거 검은 힘을 물리쳤던 ‘불벼락’의 메아리인 듯하며(“지금 머리 우에 들리는 장군의 목소리는 소리가 아니고 바로 그 불벼락이었다”), 그 소리는 항일투쟁 역사의 재현을 시작하는 ‘액션!’의 외침과도 같다.

숙모는 바삭 귀를 기울이고 장군의 말을 한 마디 한 마디 새겨볼 수는 없으나 그 소리를 듣는 사이에 쏘련 군대가 들어오자 왜놈들이 거미 새끼 흩어지듯 뿔뿔이 쫓겨가던 광경이 다시금 선히 보이고 그 광경 가운데서 번개같이 휘날리는 장군의 모양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그리고 새까만 어둠 속에 둥그런 햇발이 솟아올라 오만천지가 모조리 휘황해지는 광경이 또 눈앞에 나타나고 뒤이어 수 없는 사람들이 손에다 각각 새 연장을 들고 그리고 고도 밝은 한결같이 한 길로 물결처럼 내달리는 광경이 또 눈앞으로 방불히 지나갔다.

그때 만세 만세 만세... 하는 무서운 10만의 합창 소리가 하늘로 퍼져 올라가는 가운데서 장군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그 그림자는 숙모의 눈망을 속에 마치 큰 바다 파도 우에 솟은 태양처럼 두둥실 떠올랐다.¹⁷⁾ (인용자 강조)

김일성의 ‘불벼락’ 같은 목소리는 무대의 막을 올리는, 또는 영상을 틀기 시작하는 신호에 다름 아니다. 막이 오르면 무대 위에서 영웅적인 항일투쟁 역사가 벌어지고, 승리와 함께 새 세상이 도래하고, 민중은 새 삶을 향해 달려나간다. 김일성이 영도한 투쟁의 역사를 세 가지 연속 장면으로 그려내면 바로 그와 같은 영상이 만들어진다. 그것이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는 영상이

14) 한설야(1960), 110-111.

15) 한설야(1960), 113.

16) 한설야(1960), 118.

17) 한설야(1960), 120.

라면, 이제 그 무대에 실제 김일성이 등장함으로써 현재는 미래로의 연속성을 획득하게 될 것이다. 이 불멸의 운동력을 상징적으로 대변해주는 기호가 바로 ‘태양’이다. 여기서 ‘태양’은 기표인 동시에 기의인 기호, 즉 아이콘(icon)이다. 김일성은 실제로 절망의 어둠을 물리친 “둥그런 햇살”이자, 앞으로의 밝은 삶을 밝혀줄 생명의 원천 곧 일출의 태양이기 때문이다. “전 조선 3천만의 태양이요, 어버이요, 스승”인 김일성의 존재는 그러므로 등장하는 순간부터 영원불멸이다. “모든 조선사람의 태양”이고, “드뎡는 태양처럼 빛나는 장군”이며, “휘황찬란한 햇살”로서 “만화경처럼 빛나”는 얼굴의 김일성에게는 만물의 근원으로서 태양-조물주가 지닌 주요 속성 - 따뜻함, 생명력, 창조력 등 - 이 내재해 있다.

장군은 본시 어릴 적부터도 그랬지만 몸을 가만히 가지고 있지 않았다. 새 무엇이 일순간도 쉬지 않고 몸속에서 움직여 몸의 동작으로 나타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 몸 전체에서는 늘 무엇이 생동하고 발기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래서 몸은 늙은 나무처럼 팻팻하지 않고 언제나 푸른 잎, 새싹처럼 부드럽고 자유스럽게 움직였다. 거기에는 음악도 있고 무용도 있는 것 같았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장군의 몸 속에서 흘러 넘치는 창조력의 표현 일 것이다. 이 몸동작도 속모에게는 깊은 인상으로 남아 있었다.¹⁸⁾

태양의 비유가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가. ‘바다 위에 두둥실 떠오른 태양’의 정경, 다시 말해 일출의 광경은 새로운 시작을 표상한다. 태양-김일성이라는 영웅의 출현은 그러므로 새로운 세상, 새로운 삶, 새로운 인간의 탄생을 뜻하는 것이다. 러시아 혁명 초 레닌은 새로운 사회주의 시대의 설계에 따른 ‘새 인간형(новый человек, человек нового типа)’을 주문한 바 있다. 마찬가지로 김일성이 구상하는 “새 조선”이 “새로운 낙원”으로 변하는 과정에도 ‘새로운 인간형’인 ‘새로운 영웅’의 존재가 요구된다. ‘새로운 낙원’은 “땅 가는 모든 사람들이 생을 노래하게 될 그 즐거운 진경”이며,¹⁹⁾ 그 사회의 일원은 자연스럽게 러시아 혁명 영웅에 버금가는 영웅적 의식화 과정을 거치도록 예정되어 있다. 가령 창주 어머니가 감옥에 붙잡혀간 아들을 보러 감옥에 가서 수감 된 청년들을 보는 순간 그들 모두의 어머니로 거듭나는 대목은 고리키의 ‘어머니’가 보여준 의식화 과정과 별반 다를 바 없다.

18) 한설야(1960), 118.

19) 한설야(1960), 126.

그때 내가 경찰서에 가 보니까 숫한 청년이 갇혀 있어요. 그게 다 제 살 일이나 계집 일 하다 들어갔겠습네까. 어떤 청년은 저 놈들이 두드려 패고, 코로 물을 먹인다, 고춧가루를 부어 넣는다 하는 통에 세멘 바닥을 손톱으로 긁어서 손톱이 죄다 뒤로 젖혀졌는데도 점심 먹을 때 끼얹이 들여다 보니까 그도 나를 내다보고 빙긋 웃으면서 눈인사를 합데다. 아마 저희들과 같은 청년의 어머니 줄 알았던가 봐요. 그래 나는 그때부터 기운이 납데다. 오! 내 아들도 외롭지 않구나. 동무들이 얼마든지 있고 또 뒤를 이어 자꾸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다. 온 조선 사람이 모두 떠들고 일어나주기를 바랐습다. 아니 나부터도 그까짓 놈들이 무어 무서울 것 있으랴. 내 아들이 죽는 데 난들 무어 죽는 게 그리 겁나라 싶었습다. 내가 죽느라 내 뒤에도 사람이 있을 테지, 아니 첫째 우리 장군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뱃심이 생겨서 그 답부터는 경찰에 밥을 가지고가서 내 아들에게 먹이겠다고 때를 썼습다. 그러니까 점점 더 간이 커집데다레.²⁰⁾

숙모의 말은 “조선 인민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의식의 전형이다. “배우지 못하고, 돈 없고, 권리 없던 한개 농촌 부인에게서 조선의 앞길에 비치는 무한한 희망과 광명을 장군은 이제금 다시 느끼었다”고 작품은 서술한다.²¹⁾ 김일성의 ‘햇살’이 비치는 북조선은 지도자와 인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이는 ‘광명’의 세계다. 한설야의 「개선」은 바로 이 인민(창주 어머니)의 관점에서 기술된 것인바, ‘태양’의 은유법으로 구성된 김일성 형상은 인민에게 이어지면서, 동시에 새 세상의 새 인민이 앞으로 해나가야 할 바를 제시하는 교시적 역할을 하게 된다. ‘사실’에서 ‘신화’로의 치환은 이때 이루어진다.

3. ‘태양’의 수사학: 스탈린에서 김일성으로

「개선」은 “태양으로서의 김일성의 형상을 집중적으로 그려낸 첫 경우”로 일컬어지는데,²²⁾ 김일성 형상에 부여된 ‘태양’ 수사의 기원은 사실 그 이전인 194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46년 8월 15일, 즉 해방 1주기를 기념한 김일성 장군 찬양 문집 제목이 다름 아닌 “우리의 태양”이었고, 그 안에는 “가릴 수 없는 우리의 빛, 감출 수 없는 우리의 태양, 다사로운 초양(初陽),

20) 한설야(1960), 128-129.

21) 한설야(1960), 131.

22) 신형기·오성호(2000) 『북한문학사』, 평민사, 104쪽.

혁혁한 백광(白光)”으로 김일성을 칭송한 이찬의 「찬(讚) 김일성장군」을 비롯해 박세영의 「햇볕에 살리라: 김일성장군에 드리는 송가」 같은 찬양시들이 수록되었다. 1948년에 발표된 박영보 희곡의 제목 또한 “태양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으며, 박세영의 조소친선 시 「해 하나 별 스물」(1947)에서도 김일성은 ‘태양’으로, 김일성이 내린 ‘20개 정강’은 ‘별’로 비유되었다.²³⁾

물론 ‘태양’과 절대 권력 간 비유가 북한 고유의 수사법인 것은 아니다. 원시 부족 사회의 태양 숭배, 프랑스 전제군주의 ‘태양신’ 별칭을 비롯해 동양 유교 문헌이 적시한 ‘천무이일(天無二日) 국무이왕(國無二王)’ 원칙²⁴⁾ 등, 동서고금을 통틀어 해와 달과 별의 천체 질서는 인간 사회 전반의 질서를 대변하고 정당화하는 공리(公理)적 근거로 자리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태양 수사에 유교주의적 관례나 민간신앙적 전통 이상의 특별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것은, 해방기 소련과의 관계망이라는 시대적·정치적 특수 조건 때문이다. 요컨대 소련의 레닌·스탈린을 원본 삼아 모택동과 김일성이 각각 ‘동방에서 떠오르는 태양’으로 묘사될 때 그것은 혁명 후 새롭게 배열된 세계 질서 안에서의 자기 증식형 ‘메타기호’로서 의미를 지닌다.²⁵⁾ 태양은

23) 그 밖에도 동시대 시편에 등장하는 태양 수사의 몇 가지 예를 더 들자면 다음과 같다. “백두성봉 향운을 헤치고/ 인민의 태양 김일성장군 떠오르셨네/ 역사에 말하라 유격대의 전사들...”(김우철, 「노예의 슬픔 원치 않고」); “오! 우리의 태양 인민의 빛인/ 김일성장군은 새 역사의 시조로. 우리들 앞길을 툭툭히 가리켜 주시나니/ 아! 새로운 조선의 기원은 빛나도다!”(한식, 「우리의 태양! 김일성장군」); “장군의 과거는 우리 영예/ 지금의 장군은 우리의 태양/ 그대가 가는 곳에 인민이 있고/ 인민이 가는 곳에 장군이 있다.”(박석정, 「김일성장군」) 모두 뒤에 언급될 엄호석의 평문 「조선문학에 나타난 김일성장군의 형상」(『문학예술』, 제3권 제5호, 1950)에서 인용하는 예다.

24) “天無二日(하늘에 두 해가 없고) 土無二王(땅에 두 왕이 없고) 國無二君(나라에 두 임금이 없고) 家無二尊(집에 두 높은 이가 없으니).” 『禮記』 제49, 喪服 중에서. 고문헌에 나타난 해의 권력 상징성에 대해서는 이윤석 연세대학교 명예교수께서 알려주셨다.

25) 홍군 지도자 모택동이 태양신으로 형상화되는 과정은 유연(2012) 『마오쩌둥 도상 연구: 마오쩌둥 도상회화의 형성, 숭배, 비판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5-43쪽 참조. 유연에 따르면 모택동은 1943년 창작된 인민 가요 「동방홍」 (“동방 홍, 태양 승, 중국에 마오쩌둥이 나타났다. 그는 인민에게 행복을 주고, 그는 인민들의 구세주...”)에서 처음으로 “동방에 뜨고 있는 태양”에 비유되었는데, 이는 이후 마오 형상의 기본으로 자리 잡았다. 문화대혁명시기의 표준화된 표상도 “마오쩌둥 인물 뒤에 태양같이 비추는 후광”이었다고 한다.

러시아 혁명기 예술작품이 부각시킨 ‘새 힘’의 상징물이었다. 가령 혁명기 미래주의 오페라 「태양에 대한 승리(Победа над солнцем)」(1913)나 마야콥스키의 시 「여름 별장에서 블라디미르 마야콥스키에 일어난 비범한 모험(Необычайное приключение бывшее с Владимиром Маяковским летом на даче)」, (1920)은 모두 자연력을 능가하는 초인적 혁명성을 태양끼리의 경쟁에 빚댄 작품들이었다. 혁명은 성공했다. 그것은 새로운 태양의 승리였다. 혁명의 세계주의가 새로운 전체 질서를 창조했기에 당연히 태양은 과거에 뜨고 지던 그 태양이 아니며, 태양 수사의 상징성은 당연히 봉건·제국주의 시대의 일차적 신화 체계 너머로 확장되어야 했다.

요점은 김일성이 태양에 비유되는 단순 사실이 아니라, 그 비유를 이차(메타) 신화 체계로 파생시킨 논리적 배경이다. 해방기 북조선 포스터를 제작함에 있어 “햇살을 그려 넣어 온 세상에 빛을 뿌리는 모습을 형상화하라고” 한 김일성의 지시는²⁶⁾ 사회주의 표상 문법에 대한 그의 정확한 이해력, 그리고 그것의 재현 의지를 말해준다. 그때의 태양은 사회주의 세계라는 이차적 의미에서의 “신화의 입구로 다가서는 기호”이며,²⁷⁾ 김일성은 오직 새로운 신화 체계에 속함으로써 스탈린의 적법한 계승자 자격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해방기 은유어 ‘위대한 태양’을 스탈린 형상과 분리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북한에서 스탈린의 자취가 삭제되기 이전까지 ‘태양’의 원조는 스탈린이었으며, 김일성을 또 하나의 태양으로 호명하는 것은 조소친선 이념에 속한 자동어법과도 같았다. 서로를 위해 피 흘린 소련(인)과 조선(인)이 혈연으로 맺어졌듯 두 지도자 역시 동일 혈통의 영웅성을 지닌다는 논리 하에 태양은 혈통의 유전자를 표상하는 의미소(семе)였다. 그런데 소비에트 사회에서 태양 수사는 스탈린 찬양 서사의 기본값이기 이전에 레닌으로부터 유래한 것이다. ‘태양-레닌(Солнце-Ленин)’은 혁명 러시아 초기의 슬로건이었으며, 마야콥스키나 예세닌 같은 혁명기 대표 시인도 작품에서 그 상투어를 차용했다.²⁸⁾

26) 김소연(2018) 『북한 포스터 연구: 인물 표상의 시각기호와 전형성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40쪽.

27) “기호학자가 문자언어와 이미지 양자에 관해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것들이 신화의 입구로 다가서는 기호들이라는 점이다”라고 바르트는 『신화론』에서 썼다. 롤랑 바르트(1995) 『신화론』, 정현 옮김, 현대미학사, 26쪽; 김소연(2018: 33)에서 재인용.

28) “그대는 밤에도 우리의 태양이다”(「두 태양」), “레닌은 쾌활하고도 밝은 태양!”(「새 태양」) 등 레닌을 태양에 비유한 혁명기 찬양시의 몇몇 예들은 『문학예술』

그리고는/ 격노한 폭풍우를/ 헤쳐나온 후/ 태양 가까이/ 앉아/ 수염처럼
달라붙은/ 초록 해초와/ 해파리의 붉은 점액을/ 털어내는 거다./ 혁명 속으
로 더 멀리/ 헤엄쳐나가기 위해/ 나는 [레닌의] 태양 아래 나를 씻는다.²⁹⁾
- 마야콥스키, 「블라디미르 일리치 레닌」 중에서

하지만 이 빌어먹을/ 얼어붙은 혹성이여!/ 너 레닌의 태양으로도/ 여전히
녹혀지지 않는구나!/ 그래서/ 통 큰 영혼의 시인인 내가/ 술 마시고 싸움질
하며/ 추태를 부리게 된 것이다.³⁰⁾ - 예세닌, 「답신」 중에서

‘태양’은 권력 담론의 매개체였다. 레닌 사후 스탈린이 정권을 장악하면서 레닌에게 따라붙던 태양 수사는 스탈린의 적통성과 위상을 증명하는 정치 도구로 활용되기 시작했다. 특히 스탈린 숭배가 본격화한 1930년대 중반 이후에 오면, 태양이 공식 선전물의 중심 표상으로 확고히 자리 잡는다. ‘스탈린=세상을 밝히는 태양’, ‘모스크바=지지 않는 새로운 태양이 뜨는 곳’은 기정값이었다.³¹⁾ “당신은 태양처럼 창공을 밝힌다” “황금 태양에 영광을, 크렘린 위에 뜬 별들에 영광을, 우리의 소중한 스탈린에 영광을!”, “스탈린 동지는 전 지구의 태양!”과 같은 표어가 범람하고, 그런 관용구를 시각화한 선전 포스터들도 쏟아져나왔다. 태양뿐 아니라 불꽃, 서치라이트, 전기와 램프 불빛,

제6권 제6호(1953)에 번역 게재된 브. 므. 씨젤리니코브의 글 「쏘련 인민들의 창작에 나타난 스탈린의 형상」(125-133쪽)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29) “А потом,/ пробивши/ бурю разозленную,/ сядешь,/ чтобы солнца близ,/ и счищашь/ водорослей/ бороду зеленую/ и медуз малиновую слизь./ Я/ себя/ под Лениным чищу,/ чтобы плыть/ в революцию дальше.” Маяковский, «Владимир Ильч Ленин»(1924-1925). 이 논문에 나오는 영문, 노문 텍스트의 번역은, 달리 명시되지 않은 한, 모두 인용자 자신의 것임을 밝혀둔다.
- 30) “Но эта пакость —/ Хладная планета!/ Ее и Солнцем-Лениным/ Пока не растопить!/ Вот потому/ С большой душой поэта/ Пошел скандалить я,/ Озорничать и пить.” Есенин, «Ответ»(1924).
- 31) J. Brooks(2000) *Thank You, Comrade Stalin!: Soviet Public Culture from Revolution to Cold War*,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p. 94. 스탈린 찬양 시와 포스터에 등장하는 태양의 상징성에 대해서는 A. Pisch(2016) *Personality Cult of Stalin in Soviet Posters, 1929-1953: Archetypes, Inventions and Fabrications*, Canberra: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Press, pp. 203-209; *Золотая книга: стихи и песни о Сталине, советский плакат 1930-50-х гг., творческое наследие И. Джугашвили*(2007), М.: Чента 참조.

황금색 등 빛과 관련된 다른 이미지도 동일 맥락 안에 포섭되었는데, 가령 크렘린 책상 앞에 앉아 밤새워 일하는 스탈린의 포스터(「스탈린은 크렘린에서 우리 모두를 보살피고 있다」, V. 고보르코프, 1940)에서 책상을 밝혀주고 있는 램프는 태양의 대용물(야간 버전)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이 모든 ‘태양-스탈린’ 담론의 시원(始原)으로 앙리 바르뷔스의 『스탈린: 한 인간의 눈으로 본 신세계(Stalin: A New World Seen Through One Man)』(1935)를 주목하는 이유는, 그것이 스탈린 형상화의 원형을 마련한 세계 최초의 스탈린 전기이자, 북한의 김일성 형상 수립에서도 뚜렷한 참조점 역할을 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10월 혁명 후 프랑스에서 모스크바로 이주해 볼셰비키당원이 된 바르뷔스는 유럽 지성인으로서 유일하게 스탈린을 네 번 접견했으며, 스탈린과 밀착해 코민테른 정책 수립에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³²⁾ 바르뷔스의 스탈린 전기는 자신이 눈으로 관찰한 바와 신념으로 믿은 바를 집필한 프롤레타리아 혁명 완수의 역사였다. 이 국가적 과제물에서 전기작가가 부각한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첫째는 세계 중심으로서 태양-스탈린의 존재감이다.

모스크바 중심, 저 광대한 동서양 러시아의 중심인 붉은 광장. [...] 레닌 기념비 위에 올라선 한 사람이 모자 높이로 손을 들어올리기도 하고, 직각으로 팔 굽혀 손을 흔들기도 한다. 그는 긴 군복 코트를 입고 있지만, 그것이 그를 민중으로부터 구분 짓지는 않는다. 이 사람이 중심이다, 모스크바로부터 전 세계를 향해 빛 발하는 그 모든 것의 심장이다.³³⁾ (인용자 강조)

기록영화 한 장면을 방불케 하는 이 대목에서 부활한 레닌처럼 나타나 손 흔들고 있는 스탈린은 전 세계를 향한 빛의 근원이다. 바르뷔스가 적시한 또 하나의 영웅적 면모는 바로 레닌을 빼닮은 소박하고 겸손한 인간다움(“simplicity and modesty of Lenin’s”)에 있다. 스탈린은 거처도 소박하고, 복장도 단별 병사복이며, 급여 또한 보통 공산당 고위 간부 수준으로 기술된다.³⁴⁾ 일찍이 단순함과 겸손함이 천재 혁명가 레닌의 놀라운 특성으로 지적

32) Romain Ducoulombier(2016) “Henri Barbusse, Stalin and the making of the Comintern’s international policy in the 1930s,” *French History*, Vol. 30, Iss. 4, pp. 526-545 참조.

33) H. Barbusse(1935) *Stalin: A New World Seen Through One Man*, NY.: Macmillan Company.

34) Barbusse(1935), vii-viii.

되었던바,³⁵⁾ 바르뷔스는 스탈린에 대해서도 천재성과 평범성의 조화를 통해 ‘스탈린=오늘의 레닌’이라는 등식을 완성했다.

모든 혁명가 안에는 레닌이 있다. 그러나 레닌의 생각과 말을 그 누구보다도 닮은 사람은 스탈린이다. 그는 오늘의 레닌이다.³⁶⁾

바르뷔스 전기의 세 번째 메시지는 레닌의 현현인 스탈린이 모두의 운명을 보살피며 모두를 위해 일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의 카메라-눈은 스탈린의 집무실 안을 줌인(zoom-in)해 들어가 하나의 고정 이미지, 즉 오늘도 오직 ‘당신’을 위해 불철주야 전력투구 중인 위대한 스탈린 형상으로 클로즈업되며 끝난다. 1940년 제작된, 밤중에도 불 밝혀진 책상 앞의 스탈린 초상 포스터는 바르뷔스의 이 스탈-컷에서 기원을 찾아 마땅하다.

당신이 어디 있건, 당신의 가장 멋진 운명은 당신을 보살피며 당신을 위해 일하는 이 사람 손에 달려 있다. 학자의 머리와 노동자 얼굴을 하고 병졸의 군복 입은 이 사람 손에 말이다.³⁷⁾

빛의 근원인 스탈린, “학자의 머리와 노동자 얼굴”을 한 보통 사람 스탈린, 모두를 보살피 잘 살게 하는 아버지 스탈린 – 이것이 바르뷔스가 확립한 사회주의 지도자 형상의 공식이다. 이 공식이 김일성 형상화 작업의 표본이 되었음은 물론이다. 단적인 근거로 『문학예술』 제3권 제5호(1950년)에 나란히 실린 명월봉의 「쑤베-트 시문학에 있어서의 스탈린 스승의 형상」과 엄호석의 「조선 문학에 나타난 김일성장군의 형상」을 들 수 있다. 명월봉은 1948년 입북하여 약 10년 체류하는 동안 김일성종합대학 초대 러시아어학과장을 지내며 소련 문학과 언어학 이론을 번역 소개한 인물이고,³⁸⁾ 엄호석은 훗날 작가동맹출판사 주필, 김일성대학 교수 등을 역임하게 될 북한 문예 정책의 대변자였다.³⁹⁾

35) 고리키(2018) 「블라디미르 레닌이 죽었다」, 『가난한 사람들』, 민음사, 295-335쪽 참조.

36) Barbusse(1935), 275-276.

37) Barbusse(1935), 282-283.

38) 명월봉의 북한 체류 시기 활동에 대해서는 우동현(2016) 『1945~1950년 재북 소련계 조선인의 활동과 성격』,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9쪽 참조.

39) 최척호(2001) “북 문단 최고 평론가는 엄호석”, 『통일뉴스』, 2001.04.23,

이찬, 조기천, 한명천, 민병균, 박세영, 김복원, 김우철, 이원우, 한식, 한설야 등의 김일성 찬양문학을 언급한 엄호석의 평문은 '관념적 낭만주의'(19세기 사조)와 '고상한 낭만주의'(20세기 혁명문학)를 대립시킨 후, 후자를 혁명미학 발전의 최종 단계로 지목한다.⁴⁰⁾ 그의 가설에 따를 때, 혁명 문학사는 사실주의에서 낭만주의로 이행하는 역방향의 발전사이며, 혁명 영웅은 구체적 사실성에 기반한 낭만성을 통해 그 형상이 완성에 이르게 되어 있다. 이때의 '낭만성'이란 '사실성'이 '정치적 진실성'과 만나 예술적으로 표현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엄호석이 그 미학의 정점으로 제시한 범례가 다름 아닌 고리키의 「레닌의 회상(В. И. Ленин)」이었다. 고리키 회상록은 1924년(레닌 사후) 초본이 발표되고, 1930~1931년에 증보 출간되면서, 미망인 크롭스카야로부터 “모든 것이 사실(Правда всё)”이라며 “일리치가 온전히 살아 있다(Живой весь Ильич)”는 평을 받을 정도로 진실성을 인정받은, 레닌 전기의 원형이다.⁴¹⁾

엄호석이 레닌 형상의 사실성에 주목했다면, 나란히 글을 실은 명월봉은 스탈린 형상에 나타난 '살아 있는 레닌'으로서의 존재감, 그리고 천재성과 평범성의 '경이로운 조화'에 집중했다. 바르뷔스의 공식 전기 이후 스탈린이 레닌의 현현이라는 인식은 하나의 공식이나 다름없었다. 스탈린에게 따라붙은 '평범한 소비에트인(советский простой человек)'의 꼬리표도 실은 고리키가 레닌의 미덕으로 추앙한 단순함(“단순함. 그는 진실처럼 단순하다. Простота. Прост, как правда.”)의 메아리였다고 볼 수 있다.⁴²⁾ 명월봉이 키르키즈 콜호즈원의 스탈린 찬양시(「모두가 너의 유언대로 실현되었다」)를 범례로 인용하면서 “그는 오늘의 레닌이다”라는 바르뷔스의 명제를 잊지 않고 소환해내는

<http://www.tongilnews.com> (검색일: 2022.07.16).

40) 엄호석(1950) 「조선문학에 나타난 김일성장군의 형상」, 『문학예술』, 제3권 제5호, 23-24쪽.

41) Н. К. Крупская(1941) “Письма к М. Горькому”, *Октябрь*, № 6, С. 25-27. 1946년 소련을 방문한 이태준이 레닌박물관에 가서 고리키의 「레닌의 회상」을 기억해내는 것으로 미루어 이 전기는 일제강점기 지식인 사이에도 널리 알려졌던 듯하다. 이태준(2001) 『소련기행』, 이태준문학전집 4, 깊은샘, 171-172쪽.

42) 레닌은 소비에트 공산주의 혁명 자체를 단순성/평범성의 체현으로 보았다. “러시아의 대중에게는 그들의 이성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한 무언가를 보여줘야만 합니다. 소비에트와 공산주의처럼 단순하게 말이죠.”(고리키 2018: 312). 이 번역문에서는 ‘단순함’으로 옮겨졌지만, 러시아어 ‘простота/простой’는 ‘평범함’, ‘평이함’, 그리고 계급적 ‘평민성’ 등의 복합적 의미를 가진 단어이다.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⁴³⁾

스탈린 입장에서 레닌과의 유사성은 당연히 지도자 혈통을 정당화하는 도구적 개념이었고, 다시 강조하건대, 이 점은 스탈린과의 유사성을 강조한 초기 김일성 형상의 핵심 논리이기도 하다. 죽은 레닌을 그의 ‘아우’이자 ‘충직한 벗’인 스탈린이 대체함으로써 소련 문학의 ‘낙관적 로맨티시즘’이 완성되는 것이라면, 김일성 형상은 레닌-스탈린 형상의 특성을 계승함으로써 북조선의 ‘고상한 낭만주의’를 창출해야만 했다.⁴⁴⁾ 그 과제를 염두에 둔 명월봉은 이렇게 결론짓는다.

그러면 우리의 결론은 명백하다. 스탈린! 이 이는 전세계 근로자들의 태양이며 가장 사랑하는 영도자며 공산주의의 승리의 상징이며 레닌의 가장 친근한 벗인 동시에 볼셰비크 당의 수령이며 모든 승리의 조직자다. 이러한 것이 그의 형상의 근본적 내용으로 되어야 한다.⁴⁵⁾

전세계 근로자들의 태양이며, 가장 사랑하는 영도자이며, 공산주의 승리의 상징인 동시에 ‘레닌의 벗’인 스탈린 형상이 김일성에 이항하는 과정에서 필요했던 것은 ‘레닌의 벗’을 ‘스탈린의 벗’으로 교체하는 정도에 불과했다. 스탈린 형상의 ‘근본적 내용’은 곧 김일성 형상의 그것이며, 형상의 주요 토포스(topos) 또한 계승 대상이 되었다. 그 예로 다시 한번 태양 수사의 경우를 짚어보고자 한다. 다음은 명월봉이 글에서 소개한 잠불 자바예프(Джамбул Джабаев, 1846-1945)의 장시 「스탈린의 노래(Песня о Сталине)」 일부분이다.

43) “우리는 스탈린과 말하는 것이 레닌과 말하는 것이며 스탈린과 가치 가는 것이 레닌과 같이 가는 것이다 라는 구절을 읽을 때 볼란서의 혁명작가 앙리 바르브르의 ‘스탈린 - 이 이는 오늘의 레닌이다’라는 말을 회상케 된다.” 명월봉(1950) 「쑬베트 시 문학에 있어서의 스탈린 스승의 형상」, 『문학예술』, 제3권 제5호, 36-37쪽.

44) 여기서 사용된 ‘고상한’이라는 수식어의 계보를 따져보고 싶는데, 1915년 일본 ‘예술좌’ 내한 공연 때 『카츄시아』 『짜로메』 『마구다』가 “고상한 사회극”으로 홍보되었으며(『매일신보』, 1915.11.09), 그 경우의 ‘고상한’은 현대 정통 극예술이라는 선진적 형식 외에도 작품에 담긴 도덕적 메시지를 가리키는 형용어였다. 과거의 죄업을 씻고 새로운 인간형으로 거듭난다는 의미에서 ‘고상함’은 도덕적 ‘승고함’과 동의어이며, 이는 사회과학적으로 혁명이 꿈꾸는 새로운 인간 세계의 당위성과 접점을 갖는다.

45) 명월봉(1950), 43.

쓰팔린! 그대는 봄의 태양이러라! / 그대는 마치 따스한 햇볕과도 같기에/
 별판에는 짝이 트고 백화는 피기 시작하며/ 가슴은 힘차게 고동치고/ 핏줄
 기 뜨겁게 뛰노라/ 일생에 두 번 다시 못오는 청춘을/ 그대를 찾기에 오랜
 세월은 흐르고/ 흘러 나는 어느덧 늙어서 은빛 수염이 늘어졌건만/ 그대를
 만난 지금 나는 다시 젊어졌도다/ 기적인양 다시 잠불에게는 청춘이 돌아왔
 나니/ 온몸의 피는 마치 꾸무쓰(말젖으로 만든 감주)처럼 괴여 용솟음치는
 것 같고/ 등은 다시 펴지는 것 같고/ 하이얀 이빨 다시 나오는 듯하네// 90
 평생에 다시금 맞는 청춘이러라/ 쓰팔린 당신에게 나는/ 마지막 머슴사리를
 청산하고/ 인민의 축복과 당신의 은덕으로 말미암아/ 재생된 우리의 사랑을
 바치노라/ 우리는 무엇을 알았던가? 비애와 빈곤과 암흑뿐/ 우리는 무엇을
 보았던가? 쇠사슬과 채찍과 총검뿐/ 부자놈들은 우리를 개만도 못하게 부렸
 나니/ 억눌린 무리의 외침소리 암흑속에 살아졌거늘/ 그러나 불끈 솟아 어
 둠을 몰아내는/ 마치 태양인양 그대는 와서/ 인민은 다시금 그대의 힘으로/
 구원되었노라// 드디어 우리는 국장을 만들고/ 기빨을 높이 올렸나니 이는/
 가장 빛나고 행복스러운 나라의 것일세// 태양 스탈린이여! 크레믈린 안에
 영원히 빛나라!⁴⁶⁾ (인용자 강조)

잠불은 카작스탄의 즉흥 음유시인(aqyn)으로, 1930년대 중반에 '발굴'된 후
 1938년에는 최고 영예인 레닌 훈장까지 받은 전설적 인물이다. 그가 창작한
 많은 친혁명, 친스탈린 구전 민요가 러시아어로 번역되어 인기를 얻었는데,
 발굴 당시 이미 70세, 「스탈린의 노래」를 불렀을 때가 무려 90세에 이르렀던
 이 유목민-시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설(그는 실제 창작자가 아니고, '번역자'
 로 지칭된 관변 시인들이 그를 내세워 체제 선전의 도구로 삼았다는 설 등)

46) 명월봉(1950), 39-40. 잠불 시 원문은 다음과 같다. “Сталин, солнце весеннее – это ты!/ Как посмотришь и, словно от теплых лучей,/ Колосятся поля, расцветают цветы,/ Сердце бьется сильнее, и кровь горячей...// Дважды юности в теле цвести на дано./ Я старик, у меня серебро в бороде,/ Но увидеть тебя я мечтал так давно./ Что, увидев, я сразу помолодел...// Снова юность, как чудо, Джамбулу дана./ Будто кровь, как кумыс забурлила, звеня./ Будто снова моя разогнулась спина./ Будто белые зубы растут у меня...// Молодой в свои девяносто лет./ Жизнь прожив, как самый последний кедей, –/ Я принес тебе, Сталин, народа привет/ И любовь, возрожденных тобою людей...// Что мы знали? Тоску, нищету и мрак./ Что мы видели? Цепи, камчу и штык./ Богатеи держали нас хуже собак./ В темноте угасал наш подавленный крик...// Но как солнце, взойдя, разгоняет мрак./ Ты пришел, и народы тобой спасены./ И сковали мы герб, и подняли мы флак/ Самой светлой и самой счастливой страны...// Сталин-солнце! Гори, не сгорая, в Кремле.”(Золотая книга 2007: 60-61)

이 전해진다. 원작자가 누가 되었건, 잠불 시의 특징은 스탈린을 단순히 태양으로 비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가 왜 태양인가’라는, 비유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힌다는 데 있다. 태양은 추위를 이기는 따뜻한 온기요,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자, 생명을 주고 또다시 태어나게 하는 힘이다. 그 힘이 90 노인 잠불의 회춘을 불러온 것처럼, 억눌린 민중을 구원하는 기적을 일으키고, 사방 널리 모든 생명체 하나하나에 평등의 확산력을 발휘한다. 잠불의, 그리고 잠불 뒤에 숨은 소련 체제의, 태양 수사는 결국 다 같이 잘 사는 지상낙원의 비전을 주장하고 설득하기 위한 논증 방식인 동시에, 끝없이 이어지는 열거법(*enumeratio*)의 부연 언술로써 민중 뇌리에 그 메시지를 정착시키는 주술 행위에 가깝다. 전통적인 의미의 태양-절대군주 수사, 하물며 태양-레닌 수사와의 변별점은 여기에 있으며, 이것이 핵심이다. 태양-스탈린은 단순한 절대 권력을 넘어, 그 권력을 향한 우상 숭배(*культ личности*)의 논리적 수단이자 상징이었던 것이다.

스탈린 형상을 계승한 김일성 형상의 공식도 ‘논증’을 중요시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엄호석 평문 「조선문학에 나타난 김일성장군의 형상」의 목적은 기존 작품 소개나 분석보다 창작 원칙의 교시에 있었는데, 그 원칙은 설득력 있는 ‘정서’를 노래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장군의 혁명적 위업을 연구하고 표현함으로써 ‘관념적 낭만주의’가 아닌 ‘고상한 낭만주의’(혁명문학)의 단계에 도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때 엄호석이 제시한 논증 방식이 바로 “숨은 일화와 사실, 전설과 사적”의 열거법이다. ‘김일성=태양’의 수사법은 텅 빈 ‘관념적 도식’으로서가 아니라 실제 일화를 통해 증명되어야 했다. 장군의 위대함을 논리적으로 설득해야 한다는 출발점은 동일하지만, 북한에서는 실증(일화)의 축적이 논리 전개를 대신해주었다. 어떤 수사를 사용하는가와 관계없이, 지도자 형상에서의 방점은 ‘비유’가 아닌 ‘사적(史蹟)’을 통한 설득력에 있었기 때문에, 가령 1936년 보천보 사건을 묘사한다 치면, 우선 ‘일련의 사적’을 조사한 후 세밀한 ‘디테일’을 담아 사건의 ‘정치적 의의’를 표출하는 방식이 되어야 했고, 빨치산 활동을 다룰 때는(한설야의 「혈로」에서처럼) 김일성이 구사한 빨치산 전술의 완벽성이 현장 자료로써 입증되어야 했다.⁴⁷⁾ 그것이 김일성 찬양 서사의 중추인 ‘일화’의 존재 의미였다.

47) 엄호석(1950), 27-31.

4. 두 ‘태양’: N. 그리바초프의 「김일성 장군」

이제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는 의미에서 소련 시인 N. 그리바초프(Н. Грибачев)가 쓴 김일성 찬양시를 주목하고자 한다. 그리바초프는 2차 대전에 참전하여 보도 기자로 활동했으며, 이후 이른바 ‘당의 소총병(автоматчик партии)’을 자처하며 관변 문인 활동을 이어간 인물이다. 총 5장으로 이루어진 서사시 「김일성(Ким Ир Сен)」은 6.25 전쟁 초반인 1950년 8~11월에 썼다고 되어 있다. 앞서 해방기 북한을 방문한 후 인상기를 쓴 A. 기토비치·B. 부르소프처럼, 그리바초프는 1949년 10월부터 1950년 전쟁 발발 시점까지 북한에 머무르면서 자신이 본 바를 시로써 기록했다. 그렇게 해서 1951년 11월 발간된 시집이 『불굴의 조선(Непокоренная Корея)』이다.⁴⁸⁾ 그는 시집 서문에서 자신이 조선 인민을 직접 눈으로 보았으며(“Я видел корейский народ.”), 평화의 노력과 용기와 자유의 열망으로 가득 찬 조선 인민의 승리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밝혔다. “조선 인민이 거둔 승리의 이름으로(во имя победы корейского народа)” 씌어진 이 조선 ‘이야기(рассказ)’ 맨 마지막에 서사시 「김일성」이 등장한다. 이 작품은 북한에서도 동시 번역되어 러시아어판보다 오히려 먼저 단행시집으로 나왔고, 이때 번역자는 다름 아닌 「백두산」 시인 조기천이었다.⁴⁹⁾

1950.8-11월 사이에 씌어진 「김일성」은 다분히 목적성을 지닌 전쟁시이며, 집필 의도는 백두산 빨치산 대장 김일성의 영웅성을 되새기면서 6.25 전쟁의 승리를 확신하기 위함이었다. 소련 작가 그리바초프가 그려낸 김일성은 앞에서 서술한 영웅 형상화 작업의 공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무엇보다 김일성은 스탈린의 적자임이 강조된다. 그는 스탈린처럼 ‘강철’의 힘과 의지를 지닌

48) Н. Грибачев(1951) *Непокоренная Корея*, М.: Советский писатель. 15편의 창작시와 4편의 번역시로 이루어진 시집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해에서」, 「평양의 아침」, 「남포」, 「원산」, 「춤추는 최승희」, 「들판에서」, 「아리랑」, 「우화」, 「노래하는 아이」, 「굴복하지 않으리!」, 「친구들에게」, 「그렇게 될 것이다」, 「해방의 산 모란봉」, 「스탈린에게 바치는 시(김재규)」, 「다렌강(민병균)」, 「친구(김상오)」, 「전쟁전야(조기천)」, 「김일성: 서사시」. 그리바초프의 북한 체류 중 활동상에 관해서는 박남수(현수)의 짧은 인상 기록이 있다. 박남수(1999) 『적지 6년의 북한문단』, 보고서, 157-170쪽.

49) 니콜라이 그리바초프(1951) 『김일성장군』, 조기천 역, 평양: 민주조선사. 조기천이 번역한 그리바초프의 서사시에 대해서는 발간 즉시 『문학예술』에 감상평이 실렸다. 이정구(1951) 「위대한 수령의 형상: 조기천 번역 니꼬라이 크리바초프 원작장시 『김일성장군』을 읽고」, 『문학예술』, 제4권 제2호, 86-92쪽.

인민의 보호자이며, 태양(=스탈린)의 아들이다. 더불어 그리바초프의 김일성은 1930년대 바르뷔스가 정착시킨 영웅 스탈린을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닮았다. 몇 가지 예를 들자면, 김일성은 예의 그 쾌활하고 단순한 젊은이가 아니라, 침착하고 다정한 외유내강형 인물로 묘사된다.

침착하고도 다정하신 태도/ 우습어린 안광 -/ 그이는 담화에 만족하여/
우리말을 주의깊이 듣기도 하시고⁵⁰⁾

Приветлив, радушен, спокоен,/ с прищуром улыбчивых глаз/ сидел он,
беседой доволен,/ и слушал внимательно нас (친절하고, 다정하고, 침착하
고,/ 가늘게 뜬 눈으로 웃음 지으며,/ 담화에 만족해하며 앉아서/ 우리 말에
귀 기울였다)

원문과 대조해보면 더 잘 드러나는데, 이 초상은 평소 스탈린의 전매특허라 여겨지던 단어들(친절, 다정, 침착, 특히 눈웃음)의 조합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 그리고 이 모습은 1949년 2월 김일성과 함께 스탈린을 접견한 백남운이 감격 속에 묘사하는 초상과 겹쳐지는 것이기도 하다.

처음에 약속할 때의 인상으로는 키가 큰 편은 아니었다. 그러나 앉은 키는 높을 뿐만 아니라 결코 70의 고령으로 볼 수 없는 건강한 동작과 림름한 기상은 과연 혁명적 투쟁정신의 화신으로서 새 인간을 대표하는 세계적 위인의 장엄한 모습이다. 또한 그 미우(眉宇)에 나타나는 영매한 기상은 스스로 기압을 느끼게 하면서도 눈초리에 서린 전세계 인민의 벗다운 인자한 안광은 좌중을 더욱게 한다.

[...]

인류의 신사회를 창조하는 최고의 ‘기사(技師)’인 만큼 세계노동인민의 태양으로서 숭앙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어니와 사물에 정통하는 태양이 그 두뇌 속에 서리고 있는 듯이 세계 정치사정을 꿰뚫고 있는 천재적 정치가인 인상을 받게 되었다. 회담하는 중에 두 번이나 스탈린이 입을 빙그레 하고 눈우습을 보냈다. 조선사정에도 정통하고 있는 표정이었다.⁵¹⁾

70대 스탈린과 30대 김일성의 유사성은 그들이 일하는 집무실과 집무 방식에도 드러난다. 바르뷔스가 묘사했던 스탈린의 소박한 집무실에는 레닌 초상이 걸려 있고, 공식 행사 때 스탈린의 자리는 언제나 레닌 입초상 아래 또는 레

50) 그리바초프(1951), 1.

51) 백남운(2005) 『쏘련인상』, 선인, 83-87쪽.

닌 영묘 위에 위치했다. 마찬가지로 김일성의 작은 방 벽에는 스탈린 초상이 걸렸고(“벽에서 쓰딸린이 바라보시는 사무실”),⁵²⁾ 스탈린이 항상 레닌과 함께 했듯, 그는 스탈린과 직접 대화하며 인민의 번영을 가져오는 혁명 영웅으로 그려진다(“우리들이 어떻게 잘살 것을/ 그이와 쓰딸린이 이야기 하셨다”).⁵³⁾

스탈린이 그런 것처럼, 그는 인민과 함께 하는 보통 사람이며(“그는 우리같은 사람이다”)⁵⁴⁾, 또한 스탈린처럼, 보통 군복을 입고 전쟁터에 나타나 부하들을 보살핀다. 이 부분은 특히 바르뷔스 전기에도 인용되었던 내전 기간 중의 스탈린을 환기하는 측면이 있다. 당시 반혁명군 반항이 가장 심했던 차리친(Tsaritzin) 전장에서 “스탈린은 침착했고, 평소처럼 생각에 잠겨, 실제로 잠도 자지 않으면서”⁵⁵⁾ 부대를 돌봤다는 것이다. 전선에서 김일성의 모습도 유사하다.

하지만 전사들의 이야기를 믿을진대/ 철화속에서 지여내인 그말을 듣건대/
그이는 표식 없는 보통 군복을 입으시고/ 부대에도 여러 번 나타났다네//
친히 침착한 동작으로/ 모든 것을 시찰한다네./ 무기는 제자리에 있는가/ 탄
약은 넉넉한가.⁵⁶⁾

조기천은 원시를 아주 정확히 옮기지는 않았는데, 원문에서 좀 더 확연히 드러나는 것은, 김일성의 초상 자체가 상투화된 스탈린 초상의 번역물에 가깝다는 점이다. “평범한 모습으로/ 평범한 외투와 모자를 쓰고(запросто в части/ в шинели и шапке простой)” 부대에 나타난 김일성의 초상은 바로 바르뷔스가 묘사했던 평범한 병사복 유니폼의 스탈린,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그에게(그리고 레닌에게) 속성으로 내재된 ‘평범성/단순성(простота)’ 원칙의 구현에 다름 아니다. 역시 조기천이 정확히 번역하지 않았지만, 원문의 “침착하게, 성실하게,/ 눈을 가늘게 떠 주의 깊게/ 시찰한다(и сам, не спеша, честь по чести,/ прищунив внимательный глаз,/ обследует)”는 부분도 스탈린의 특징 묘사와 일치한다. 다시 말하건대, 그리바초프는 소련에서 확립된 스탈린 형상에 따라, 그 원본의 복사품인 조선 영웅을 그려낸 것이다. 그 같은 복제

52) 그리바초프(1951), 10. 원문: “в маленьком зале,/ где Сталин смотрел в стены”

53) 그리바초프(1951), 27. 원문: “Как жизнь нашу сделать по-лучше, с ним Сталин беседовал сам!”

54) 그리바초프(1951), 26. 원문: “Он наш! Из крестьян! От земли!”

55) 스탈린의 혁명 동지 카가노비치(Kaganovich)의 회고(Barbuss 1935: 68).

56) 그리바초프(1951), 52.

작업은 결과적으로 두 지도자가 하나의 혈통에 속한다는 사실과 함께 그들 운명의 동일성을 예견해주는 기제로 작동한다. 즉, 스탈린의 외모와 성품과 “강철의 의지”를 지닌 김일성은, 스탈린이 그러했듯, 조선 인민을 불철주야 돌볼 것이 당연하다. 독일 파시스트에 맞서 조국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스탈린처럼, 김일성 또한 양키와 유엔에 맞선 작금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리란 확신은 그래서 논리적 설득력을 얻는다.

잠도 없이 교대도 없이/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장군은 명철한 지혜를 베풀다/ 강철의 의지를 뻗는다/ [...] // 모든 것을 들으시며 보시며/ 모든 것을 알으시며/ 오직 하나의 목적을 가르친다/ 사단도 군단도 아니라/ 3천만을 결전에 일으키신다// 폭격에 무너지고 불탄 조선에/ 아직은 명절이 오지 않았건만/ 전쟁의 어려운 이 시각에도/ 령장은 벌써 승리를 예견하였다/ 나의 심장은 이렇게 말한다!⁵⁷⁾

바르뷔스가 스탈린 전기에서 결론으로 제시했던 것은, “당신이 어디 있건, 당신의 가장 멋진 운명은 당신을 보살피며 당신을 위해 일하는 이 사람 손에 달려 있다”는 낙관적 숙명론이었다. 그것이 곧 그리바초프가 김일성 형상에 그대로 이식한 최종 결론이기도 하다. “모든 것을 들으시며 보시며/ 모든 것을 알으시”는, 흡사 절대자-태양과도 같은 김일성의 능력은 스탈린의 능력에서 오는 것이며, 따라서 “쏘베트 로씨야의 빛(свет из России)”이자 “떠오르는 아침해(солнце всходящее)”인 두 ‘태양’을 따르는 인민은 행복할 수밖에 없다. 그런 각도에서 볼 때, 그리바초프의 서사시 「김일성」은 결국 김일성의 이름과 형상을 빌린 또 다른 스탈린 찬양시였다.

5. 결론

그리바초프의 서사시는 6.25 전쟁 한복판에서 씌어졌다. 즉, 해방기 조선친선 이데올로기가 조국 해방 전쟁의 격전장으로 옮겨가면서 스탈린과 김일성 간 혈맹의 필요성이 극대화할 수밖에 없던 기간에 제작되었다. ‘태양-스탈린’이 마지막으로 정점에서 위력을 발휘하던 시기의 형상물인 셈이다. 1953년에 6.25 전쟁이 끝나고, 또 그보다 몇 달 앞서 스탈린이 사망한 이후 북한 내에서 스탈린의 위

57) 그리바초프(1951), 61-62.

상이 변화하며 소련과의 관계가 급전하게 됨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것은 당연히 이 글이 다루는 범위 너머 주제인데, 다만 지금까지 서술한 것은 초기 '태양-김일성' 형상이 어떤 공식과 논리로써 '태양-스탈린'의 원형에 덧입혀져 활용되었는지의 전개 과정이었다. '태양' 수사는 '진짜냐 가짜냐', '사실이나 소문이나'의 기로에서 출발한 김일성의 지도자 정체성을 정당화하고 입증하는 전략으로, 동시에 해방기 친(親)스탈린·소련 이데올로기의 표출 수단으로 적극 활용되었다는 것이 이 글의 논지이며, 그 점을 소련과 북한의 여러 문헌으로 예증하고자 했다.

현재로서는 그리바초프의 전쟁기 서사시 「김일성」만 다루었지만, 조기천의 「백두산」(1947) 역시 동일 맥락에서 비교해볼 수 있는 주요 작품이다. 연해주 출신의 소련 공민 조기천이 “이 시편을 영웅적 해방군 쏘련 군대에게 삼가 올리노라”는 헌사와 함께 출간했던 원본 「백두산」의 의미는 1950년대 이후 판본에서 퇴색하고, 애초 김일성 항일투쟁사에서 강조했던 소련의 역할과 소련-빨치산 연대의식도 삭제될 수밖에 없었다. 차파예프(Чапаев), 쇼르스(Шорс), 라조(Лазо)의 전술을 학습하며 대문자형 ‘북쪽 나라(Северная Страна)’에 기대었던 ‘학생’ 김일성은 자취를 감추고, 대신 스스로의 천재성으로 항일투쟁을 이끈 주체적 민족 영웅 김일성이 그 자리에 우뚝 서게 된 것이다. 다른 해방기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백두산」 개작은 김일성 유일 체제로의 노정과 함께 하는 역사적 산물이다.

해방기 소련 여행자의 가장 큰 관심 대상은 뭐니 뭐니 해도 “전 세계 근로 인민의 숭앙하는 태양”⁵⁸⁾ 스탈린이었다. 이태준, 한설야, 백남운 등이 혹은 면발 치에서 혹은 코앞에서 본 스탈린 묘사 대목은 가치 있는 비교분석 대상이 아닐 수 없다. 그중 한설야의 수필 「스탈린은 우리와 함께 살아 있다」는 1953년 스탈린 서거를 추모하며 예전 만남을 떠올리는 형식인데, 추모글이니만큼 감상적 어조를 띠는 데다가, “세기의 태양” 스탈린을 추모하는 시점과 살아 있는 또 하나의 ‘태양’ 김일성을 추앙하는 시점이 교묘하게 뒤섞여 있어 언급하고자 한다.

한설야는 1947년 9월의 모스크바 8백 주년 기념식에서, 이후 1952년의 레닌 서거 기념식에서 스탈린을 직접 보았다. 회상은 1952년에 본 말년의 스탈린에 집중되어 있다. 신병 치료차 모스크바에 체류하던 중 기념식에 참석하게 된 한설야의 관심은 줄곧 스탈린을 향했다. “스탈린을 뵈는 것은 스탈린을 보는 동시 그의 위대한 스승이시며 전우이신 레닌을 보는 것과도 같았다”고 한설야는 회상한다. 레닌에 대한 보고문이 낭독되는 순간에도 참석자들은

58) 백남운(2005), 264.

“레닌 사상의 구현자인 스탈린”의 이름을 불러 찬양했는데, 한설야는 “그것이 곧 레닌에의 추모”라고 받아들였다.⁵⁹⁾ 참석자들이 관람한 기록영화 『레닌』도 두 지도자가 함께 나오는 많은 장면을 통해 그들이 일심동체의 인물임을 강조해주었다고 기억했다. 한설야의 기억에 따르면, 레닌 서거 기념식은 실은 계승자 스탈린을 향한 축원의 자리였다.

스탈린의 적통성이 레닌 형상을 통해 인정받았듯, 해방기 김일성의 적통성은 스탈린 형상을 바탕으로 확립되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레닌의 죽음이 스탈린 등극으로 이어진 것처럼, 스탈린의 죽음은 김일성 독자 체제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일본’ 스탈린의 죽음이 살아있는 김일성에게 그 권좌를 물려받는 적법한 계기를 만들어주었고, 이 정치적 복선의 의미를 한설야를 위시한 조선의 추모자들은 놓치지 않았다. 레닌 서거 기념식이 그러했듯이, 스탈린에 대한 추모는 김일성을 향한 축원의 통로였던 것이다. 한설야는 스탈린이 과거 불세비키당에 부여했던 ‘돌격대’ 칭호를 조선 인민에게 내려주었다는 김일성의 말을 인용함으로써 결국 스탈린과 김일성이라는 두 돌격대 대장의 일체성을 은연중 암시해주었다. 그것은 이제 “우리의 스승이시며 강철의 영장이신 김일성 원수”⁶⁰⁾가 ‘강철 스탈린’의 자리에 올라 위대한 혁명정신의 적통인 유일 ‘태양’으로 빛나게 될 차례라는 예고이기도 했다. ‘조국 해방 전쟁’이 끝나가던 시점에 소환된 스탈린의 죽음의 기억(스탈린은 1953년 3월에 사망했다)은 이렇듯 김일성의 임무와 위상을 알리는 정치적 선언과도 같았고, 그런 의미에서 태양-스탈린의 소멸은 “주체의 위대한 태양”을 부르는 신호였다.⁶¹⁾

한설야의 논법은 조영출의 추모시 「영생불멸의 스탈린이시여」(1953)에서도 정확히 확인되는 바다.

당신의 심장은 그 고동을 멈추었어도/ 당신의 생명은 영원의 태양/ 당신
의 이름은 불멸의 광명/ [...] 백전백승의 깃발을 주신 당신의 은혜/ 우리의

59) 한설야(1953) 「스탈린은 우리와 함께 살아 있다」, 『문학예술』, 제6권 제3호, 33쪽.

60) 한설야(1953), 37.

61) 실제로 이후 북한에서 스탈린의 자취는 점점 사라지며, 스탈린을 본떠 만들어졌던 김일성 형상(문학, 미술 등에 걸쳐)도 수정되면서, 차츰 주체의 징표들이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붉은 광장’을 개념적으로 본뜬 ‘김일성 광장’이 조성되고(1954년), ‘스탈린 거리’는 ‘승리 거리’로 개명되고(1959년), 조소친선의 해방탑 대신 스파스카야 종탑을 연상시키는 주체사상탑이 세워지고(1982년), 그 위에 붉은 별 대신 주체의 붉은 햇불을 밝히는 수순이었다.

당에 ‘돌격대’의 이름을 주신/ 아 혁명의 천재 쓰탈린이시여!/ 우리는 앞으로
전진하오리/ 민족과 독립과 자유를 위하여/ 당신께서 유언하신 그 깃발, 높
이 들고... / 우리의 선두엔 김일성 원수 서 계십니다/ 그이는 당신의 제자,
우리의 수령/ 그이는 당신의 유언을 충실히 지키며/ 당신이 가리키신 그 영
광의 길로/ 우리를 이끌고 나아가실 민족의 령장,/ 레닌 선생께 드린, 당신의
그 맹세와도 같이/ 그 맹세를 지키신 당신의 모범과도 같이,/ 그이는 당신을
본받을 것이며/ 우리는 그이를 따라 전진하오리니.⁶²⁾ (인용자 강조)

그러나 1950년대 초반 스탈린 서거 시점에 강조되었던 ‘계승의 논법’은 생
명력이 그리 길지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대두된 ‘주체의 논법’이 김일성
을 유일무이한 ‘민족의 태양’으로 확정지었고, 그 논법에 따라 계승의 흔적은
역사에서 소거되기 때문이다. 항일투쟁의 역사 또한 다시 씌어지고 재배치되
어야 했다. 예컨대, 조영출은 1981년에 쓴 김일성 찬양문 「조선의 별, 위대한
태양을 우러러」에서 ‘태양-김일성’ 수사가 1920년대 조선청년공산주의자들의
것이였음을 주장했고, 그 예로 불멸의 혁명송가 「조선의 별」을 언급했다.

1920년대 조선의 청년공산주의자들이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조선의 별
로,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우러러 부른 노래가 반세기가 넘는 오늘에 와서
우리 인민의 가슴을 더욱 격동시키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불멸의 혁명송가
「조선의 별」. 이 노래에는 일제식민지통치의 암흑속에서 짓밟히고 신음하는
조선인민의 참담한 운명을 구원할, 삼천리강산의 새날을 고하는 려명의 새
별로, 민족의 태양으로 솟아오르신 경애하는 김일성 동지의 위대성과 그의
의 숭고한 품모가 담겨져 있고...⁶³⁾

1920년대 말 김혁이 지었다는 최초의 3절짜리 혁명 송가에 실제로 ‘태양’이
란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다. 대신 여명의 ‘새별’이 반복될 뿐이다.⁶⁴⁾ 김일성은
애초 스탈린의 태양 아래 위치한 혁명의 여러 별 중 하나였다.⁶⁵⁾ 일제강점기

62) 조영출(2013) 『조영출전집』 2, 소명출판, 178-179쪽.

63) 조영출(2013), 533.

64) 혁명 송가 「조선의 별」 원문은 남원진(2019) 「보이지 않는 포식자: ‘불멸의 혁명
송가’의 발견」, 『구보학보』, 제23호, 구보학회, 583-610쪽에서 확인. 남원진은 이
혁명 송가가 ‘발굴’된 것이 아니라 ‘발명’된 과거라는 입장이다.

65) 초기에는 김일성을 ‘태양’으로 부르는 것이 금지되었다는 설도 있다. 박남수(현
수)에 따르면, 소련 검열관이 태양은 오직 위대한 스탈린 하나뿐이라는 이유에서
김일성에게 “우리의 태양이신” 대신 “민족의 영웅이신”으로 바꿔쓰도록 명했다고

인민의 노래나 글에서 군주를 뜻하는 ‘태양’이 쉽게 등장했을 리 없고, 앞서 살펴본 대로 해방기에 도입된 태양 수사는 스탈린 원본에서 유래한 정치담론의 재현 방식이었다.

그러므로 만약 훗날 어느 시점에 그 ‘별’이 ‘태양’으로 동일시되어 읽히기 시작했다면, 그리고 그것이 바로 1980년 이후 ‘주체’의 언어론이라면, 여기서 흥미로운 결론을 도출하게 된다. 그것은 ‘주체’가 하나의 언어를 또 다른 언어로 읽어내는, 일종의 해석학적(hermeneutic) 행위의 역사라는 것이다. 주체는 단순히 새로운 미래의 언어만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과거의 언어도 만들어냈다. 그 기원과 원형은 의도적으로 망각한 채, 단어의 의미와 용례를 재정의하고 교정함으로써 주체는 마침내 미래와 과거 모두를 지배하는 권력적 담론, 즉 유르착이 말한 ‘메타담론’을 완성할 수 있었다. “메타담론은 마르크스-레닌주의적 교리의 독립적인 외부 ‘정전’에 입각해 권위적 언어를 평가하고 측정했으며, 이 정전에 대한 지식(혹은 해석)은 이 담론의 외부에 자리한 ‘주인’(스탈린)이 소유했다”고 유르착은 말한다.⁶⁶⁾

주체의 ‘메타담론’을 향해서도 되풀이할 수 있다. ‘태양’에 관한 지식과 해석은 결국 ‘주인’(김일성)에게 속한 것이었다. 그래서 하나의 언어/단어에 대해 전혀 다른 독법이 가능했고, 기표와 기의 혹은 원본과 복사물의 경계도 쉽게 무시될 수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주체의 언어는 재해석의 언어이자 참칭의 언어였다. 원형이 아니면서 원형을 자처한 언어였다.⁶⁷⁾ 해방기 메타신화의 체계에 속해 있던 ‘태양-김일성’ 수사는 마침내 권력의 실질적 지배자인 메타담론의 체계로 이향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는 신화적 비유가 아닌 권위의 실체로서 빛을 발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유르착의 표현을 빌리자면, 사라지기 전까지는 영원히.

한다(박남수 1999: 165).

66) 알렉세이 유르착(2019) 『모든 것은 영원했다, 사라지기 전까지는: 소비에트의 마지막 세대』, 김수환 역, 문학과지성사, 89쪽.

67) 가령, 여전히 스탈린 형상 공식 그대로인 다음의 주체기 김일성 형상을 보라. “아 김성주! 한별동지! 저렇듯 조선혁명의 앞길을 명철하게 밝혀주시는 위대한 령도자를 어찌 한별로만 모시랴... 하면서 그이를 태양으로, 그이의 존함을 김일성동지로 모신 것이다. [...] 너무나 소박하신 모습으로 유격대원들속에 계시는 장군님을 뵈게 되었을 때 ‘대통령감’[김혁]은 놀랐었다. 대원들과 별로 다름없는 군복을 입고 계시는 장군님! 무서운 전염병으로 앓아누운 대원들의 초막에도 서슴없이 들어가 시여 환자들의 이마를 짚어보시며 돌보시는 장군님!”(조영출 2013: 534-545).

참고문헌

- 고리키, M.(2018) 「블라디미르 레닌이 죽었다」, 『가난한 사람들』, 오관기 역, 민음사.
- 그리바초브, 니콜라이(1951) 『김일성장군』, 조기천 역, 평양: 민주조선사.
- 기토비차, A·B. 볼소프(2006) 『1946년 북조선의 가을』, 최학송 역, 글누림.
- 김국후(2008) 『비록 평양의 소련군정』, 한울.
- 김소연(2018) 『북한 포스터 연구: 인물 표상의 시각기호와 전형성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남원진(2012) 「한철야의 문제작 「개선」과 김일성 형상화에 대한 연구」, 『비평문학』, 제44호, 한국비평문학회, 153-199쪽.
- _____ (2019) 「보이지 않는 포식자: '불멸의 혁명송가'의 발견」, 『구보학보』, 제23호, 구보학회, 583-610쪽.
- 명월봉(1950) 「쏘베-트 시 문학에 있어서의 쓰딸린 스승의 형상」, 『문학예술』, 제3권 제5호, 33-43쪽.
- 박남수(현수 1999) 『적치 6년의 북한문단』, 보고서.
- 백남운(2005) 『쏘련인상』, 선인.
- 신형기(2010) 「이야기의 역능(力能)과 김일성」, 『현대문학의 연구』, 제41집, 한국문학연구학회, 289-323쪽.
- 신형기·오성호(2000) 『북한문학사』, 평민사.
- 씨젤리니꼬브, 브. 므.(1953) 「쏘련 인민들의 창작에 나타난 쓰딸린의 형상」, 『문학예술』, 제6권 제6호, 125-133쪽.
- 엄호석(1950) 「조선문학에 나타난 김일성장군의 형상」, 『문학예술』, 제3권 제5호, 20-32쪽.
- 오영진(1983) 『소군정하의 북한: 하나의 증언』, 중앙문화사(초판본 『하나의 증언』, 부산: 국민사상지도원, 1952).
- 우동현(2016) 『1945~1950년 재북 소련계 조선인의 활동과 성격』,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유르차, A.(2019) 『모든 것은 영원했다, 사라지기 전까지는: 소비에트의 마지막 세대』, 김수환 역, 문학과지성사.
- 유연(2012) 『마오쩌둥 도상 연구: 마오쩌둥 도상회화의 형성, 승배, 비판을

-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이정구(1951) 「위대한 수령의 형상: 조기천 번역 니꼬라이 크리바초프 원작 장시 『김일성장군』을 읽고」, 『문학예술』, 제4권 제2호, 86-92쪽.
- 이태준(2001) 『소련기행』, 이태준문학전집 4, 깊은샘.
- 임유경(2011) 「나의 젊은 조국: 1940년대 한설야의 ‘부권 의식’과 ‘청년-지도자 서사」, 『현대문학의 연구』, 44권, 한국문학연구학회, 211-252쪽.
- 정상진(정률 2005) 『아무르만에서 부르는 백조의 노래』, 지식산업사.
- 조영출(2013) 『조영출전집』 2, 소명출판.
- 째르치즈스키, F.(2018) 『김일성 이전의 북한』, 한울.
- 최척호(2001) “북 문단 최고 평론가는 엄호석”, 『통일뉴스』, 2001.04.23, <http://www.tongilnews.com> (검색일: 2022.07.16).
- 한설야(1953) 「스탈린은 우리와 함께 살아 있다」, 『문학예술』, 제6권 제3호, 32-40쪽.
- _____ (1960) 『한설야선집(8)』, 평양: 조선작가동맹출판사.
- 한재덕(1961) 『김일성을 고발한다』, 서울: 공산권문제연구소.
- 한재덕 외(1946) 『우리의 태양(김일성장군찬양특집)』, 평양: 북조선예술총연맹.
- Гитович, А.(1950) *Стихи о Корее*, Л.: Советский писатель.
- Гитович, А. и Б. Бурсов(1948) *Мы видели Корею*, Л.: Молодая гвардия.
- Грибачев, Н.(1951) *Непокоренная Корея*, М.: Советский писатель.
- Золотая книга: стихи и песни о Сталине, советский плакат 1930-50-х гг., творческое наследие И. Джугашвили*(2007), М.: Чента.
- Крупская, Н. К.(1941) “Письма к М. Горькому”, *Октябрь*, № 6, С. 25-27.
- Barbusse, V.(1935) *Stalin: A New World Seen Through One Man*, NY.: Macmillan Company.
- Brooks, J.(2000) *Thank You, Comrade Stalin: Soviet Public Culture from Revolution to Cold War*,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Ducoulombier, R.(2016) “Henri Barbusse, Stalin and the making of the Comintern’s international policy in the 1930s,” *French History*, Vol. 30, Iss. 4, pp. 526-545.
- Pisch, A.(2016) *Personality Cult of Stalin in Soviet Posters, 1929-1953: Archetypes, Inventions and Fabrications*, Canberra: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Press.

Abstract**Under the Sun of Stalin:
Towards the Origin of Kim Il-sung’s Image-Making****Kim, Jean-Young***

Kim Il-sung, when first appeared in 1945, was a puzzle. Most of all, his personal appearance as a young, simple, cheerful man was out of chord from that of an old veteran warrior. Therefore proving him as a real, not fake, anti-Japanese hero became the first task for those who shaped the leader’s public image during the Liberation period. One way of doing it was to consolidate his status as Stalin’s legitimate successor. As Stalin was considered Lenin’s embodiment, Kim Il-sung had to be Stalin’s embodiment, their respective image being in exact similitude. Given the situation, this article focuses on the Sun-rhetoric as a linguistic device which heavily adorned and empowered both leaders’ personality cult. It traces how ‘Kim Il-sung the Sun’ figure, modeled on the formula and the logic of ‘Stalin the Sun,’ played an important role as a way to justify Kim’s shaky identity, and at the same time, to express North Korea’s pro-Stalin/Soviet ideology. However, one should remember, the logic of legacy soon conceded its way to the logic of Juche, which acknowledged Kim Il-sung as one and only Sun for the people, making it shine not simply as a mythological trope but as an actual source of authority.

Key words: Stalin, Kim Il-sung, Leader Figure, Sun Rhetoric, Han Seol-ya, Gribachev

* Professor, Department of Russian Language and Literature, Yonsei University.

김진영

연세대학교 노어노문학과 교수. Wheaton College를 졸업하고 Yale University에서 푸슈킨에 대한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1992). 『푸슈킨: 러시아 낭만주의를 읽는 열 가지 방법』(2010), 『시베리아의 향수: 근대 한국과 러시아 문학, 1896-1946』(2017)을 출간했고, 푸슈킨의 『예브게니 오네긴』, 세로셰프스키의 『코레야, 1903년 가을』 등을 번역했다. 푸슈킨 연구서(*Пушкин: Десять очерков о русском романтизме*)는 상트 페테르부르크 페트로폴리스(Петрополис) 출판사의 러시아문학 시리즈로 번역되었다.

Kim, Jean-Young

Professor of Russian Literature at Yonsei University. She graduated from Wheaton College, and received a Ph.D. at Yale University for a dissertation on Pushkin. She has published *Pushkin: Ten Ways to Read Russian Romanticism* (2010), *Siberian Nostalgia: Russian Literature in Colonial Korea, 1896-1946* (2017), and has translated Pushkin's *Evgenii Onegin* and V. Seroshevsky's *Korea*, among others. Her monograph on Pushkin (*Пушкин: Десять очерков о русском романтизме*) was published by Petropolis, St. Petersburg as a series of Old and New Russian Literature (*Новая и старая русская литература*).

논문심사일정

| | |
|--------|----------------------------|
| 논문투고일: | 2022. 8. 5 |
| 논문심사일: | 2022. 10. 27 ~ 2022. 11. 8 |
| 심사완료일: | 2022. 11. 9 |